

“장성군에 기부하고 세계적인 사찰음식 대가 정관스님 만나자”

장성군이 마련한 이색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이 7월 첫선을 보인다. 군은 30일까지 장성군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자들에게 ‘정관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권’을 답례품으로 고를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 정관스님 사찰음식은 장성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식재료로 만든 건강 음식이다. 다수의 해외 미디어에 소개되며 한국음식, 일명 ‘케이(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를 선도하고 있다.

사찰음식 체험을 희망하는 기부자는 답례품 목록에서 체험권을 선택한 뒤 장성 백양사 누리집 예약창을 통해 ‘7월 15일 토요일 체험’을 신청하면 선착순 선정된다. 정관스님 사찰음식 시연과 오찬, 마음을 나누는 차(茶)담 등 3시간 가량 소요될 예정이며, 모든 체험객에게 정관스님이 직접 담긴 전통장류가 증정된다. 장성군은 추가 수요와 정관스님 일정 등을 감안해 하반기에도 사찰

음식 체험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선뜻 동참해 주신 정관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서 “장성을 사랑하는 기부자들에게 뜻깊은 시간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 사랑(이)음 또는 전국 농업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정관스님 사찰음식 체험 외에도 백양사 템플스

데이, 발초 대행 서비스 할인권, 명품 농축산물, 장성사랑상품권 등 47개 품목 165개의 답례품이 마련돼 있다. 한편, 장성군은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대상은 장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생산·채취·가공·제조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다. 장성군청 총무과(061-390-7234)로 기간 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유광종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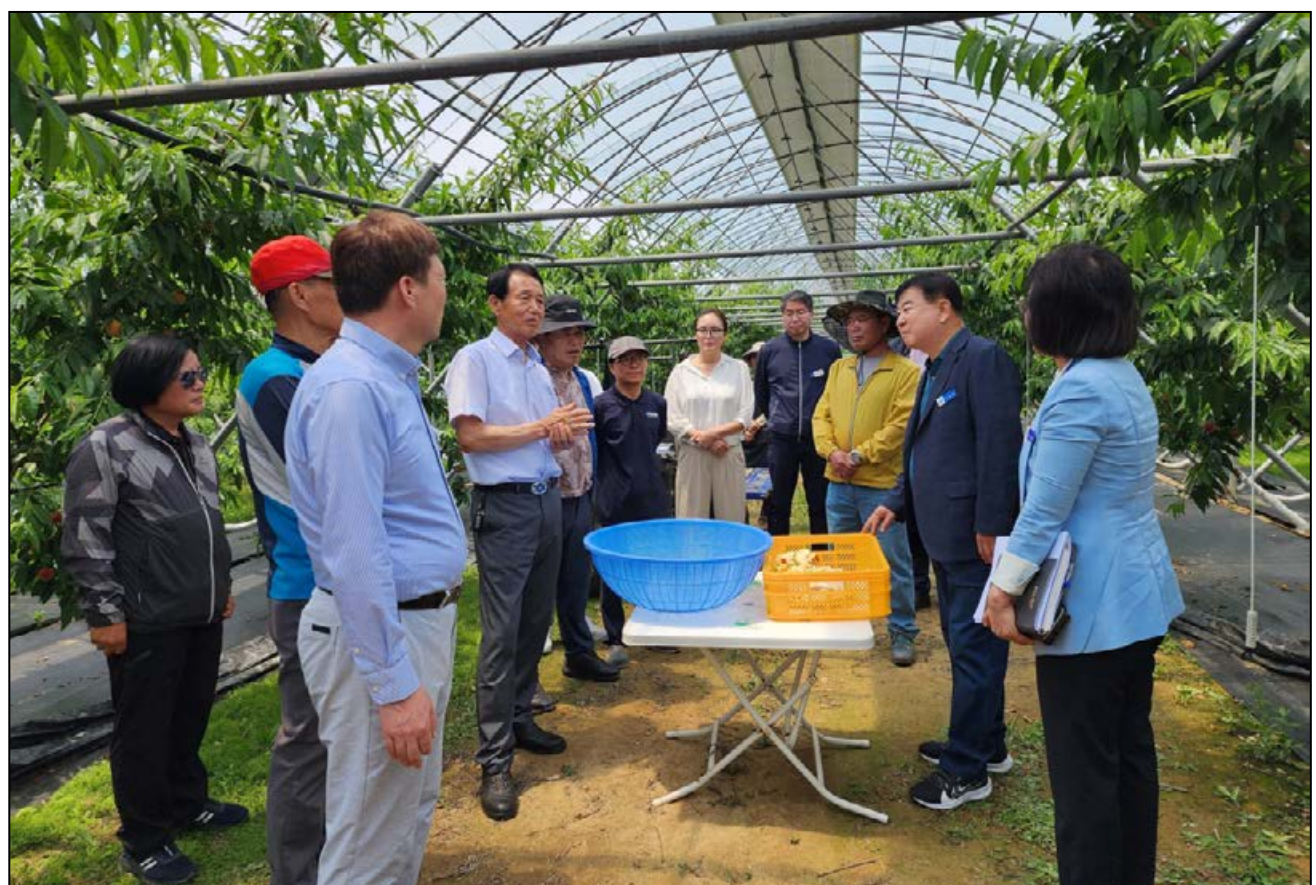
나주고향사랑기부제 대학 1호 동신대학교 1천500만원 쾌척

동신대학교가 나주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제1호 대학이 됐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동신대 이주희 총장과 교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고향사랑기부금 1천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주희 총장은 “나주지역 대학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부제에 동참하고 싶었다”며 “기부제뿐만 아니라 나주시와 동신대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가겠다”고 말했다. 동신대학교는 5년 간 총 1천억원 규모 지방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글로벌 대학 30’ 선정 준비와 함께 나주시와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 지역 관광 활성화, 장애인 평생학습 운영기관 업무협약, 여름방학 초등학생 영어

캠프 운영 등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 나주시와 동신대, 에너지밸리 내 기업 36곳, 지원기관 22곳 관계자, 교수, 학생,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밸리 혁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며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역량을 키우는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을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기부자)이 주소지 이외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 받은 지역에서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나주시는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을 확장하고 나주시에서 생산된 다양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답례품을 추가 선정했다. 흥어, 나주곰탕, 국립순채원 체험권, 나주반 등 30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김동철 기자

화순군, 에너지바우처 접수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급년도 12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4만 9,800원, 2인 가구 20만 5,700원, 3인 가구 29만 2,5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 9,6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방식은 하절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상카드를 사용해 전기요금에 자동 차감된다. 동절기인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이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 등 유·LPG·연탄 구입비를 결제할 수 있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하우스 복숭아 수확이 한창인 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6대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의 일반적인 출하 시기는 7월 이후지만 올해 영광군 복숭아는 시설하우스 내부에서 재배해 5월 말에 첫 출하를 했다. /영광군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복숭아 수확 현장 격려방문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하우스 복숭아 수확이 한창인 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6대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의 일반적인 출하 시기는 7월 이후지만 올해 영광군 복숭아는 시설하우스 내부에서 재배해 5월 말에 첫 출하를 했다. 복숭아는 전량 서울 농산물공판

장으로 순차적으로 출하하고 있으며, 현재는 각 농가별로 개인선별을 진행하고 있지만, 추후에 공동선별장 조성 및 운영을 통해 품질을 규격화시키고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다. 빠른 출하 시기와 크기가 복숭아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영광군은 다른 시설재배 시군들과 비교해도 지리적으로 남쪽에 위치

해 빠른 출하와 난방비 절약에 장점이 있다. 과실의 크기 증가 등 재배적인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의 실증 재배 및 실험 등을 통해 개선시켜 나갈 예정이다. 강종만 군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은 복숭아를 생산 및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로 영광군 미래 먹거리로 키워겠다”고 말했다. /이경률 기자

담양군, 국토부 지역활력타운 공모 선정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담양군에서 대덕면 매산리 544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담양 대덕 매산지구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26만㎡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 민간 협력사업으로 국비 97억 원, 지방비

30억 원, 민자 1천140억 등 총사업비 1천267억 원이 투입된다. 귀농, 귀촌하는 은퇴자를 주 대상으로 500세대의 주거단지과 예술인 특화단지, 농촌유학시설, 커뮤니티 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이 단지 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커뮤니티시설에는 아동·노인 복지시설, 주민동아리실, 공동식당이 포함돼 있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며, 생활기반 시설을 전면 개방해 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라남도과 국토교통부 평가 등 3회의 평가를 거쳤으며, 최종 평가에서 이병노 군수가 직접 발표에 나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최종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장진성 기자



한적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곡성여행
검색

2018년 곡성군 자연경관도현 최우수관광지 수상작